

밧데까랏따경

(Bhaddekaratta Sutta- A Single Auspicious Attachment- 한 밤의 슬기로운 님의 경, 맛지마니까야 MN131, 전재성역)

1. 이와 같이 난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 싸밧티 시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뻔 디까 승원에 계셨다.

2. 그 때에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다.

3.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한 밤의 슬기로운 님에 대하여 대강과 그 분석에 대하여 설하겠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나는 그대들에게 설하겠다.”

[수행승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4.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열중해야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 것인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
그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를
한 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부르네.

5. 수행승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가?

이와 같이 ‘나는 과거에 이러한 물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지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형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승이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6. 수행승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가?

이와 같이 ‘나는 과거에 이러한 물질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지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형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승이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7. 수행승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바라는가?

이와 같이 ‘나는 미래에 이러한 물질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나는 미래에 이러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나는 미래에 이러한 지각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나는 미래에 이러한 형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고,
‘나는 미래에 이러한 의식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승이여, 미래를 바란다.

8. 수행승들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바라지 않는가?

이와 같이 ‘나는 미래에 이러한 물질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미래에 이러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미래에 이러한 지각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미래에 이러한 형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미래에 이러한 의식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승이여,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9. 수행승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의 상태에 정복되는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의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거룩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람을 알지 못하고, 참사람에 이끌리지 않아서,

1) 물질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고,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2) 느낌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가 느낌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느낌이 있다고 여기고, 느낌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3) 지각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가 지각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지각이 있다고 여기고, 지각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4) 형성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가 형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형성이 있다고 여기고, 형성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5) 의식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가 의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의식이 있다고 여기고, 의식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긴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현재의 상태에 정복된다.

10. 수행승이여,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의 상태에 정복되지 않는가?

수행승들이여, 이 세상의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는 거룩한 이를 인정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알고, 거룩한 가르침에 이끌리고, 참사람을 인정하고, 참사람을 알고, 참사람에 이끌려서,

1) 물질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2) 느낌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가 느낌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아 가운데 느낌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느낌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3) 지각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가 지각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아 가운데 지각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지각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4) 형성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가 형성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아 가운데 형성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형성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5) 의식을 자아로 여기지 않고, 자아가 의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아 가운데 의식이 있다고 여기지 않고, 의식 가운데 자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현재의 상태에 정복되지 않는다.

11.

[세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없이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오늘 해야 할 일에 열중해야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 것인가?
대군을 거느린 죽음의 신
그에게 결코 굴복하지 말라.

이와 같이 열심히 밤낮으로
피곤을 모르고 수행하는 자를
한 밤의 슬기로운 님
고요한 해탈의 님이라 부르네.

12. 수행승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한 밤의 슬기로운 님에 대하여 대강과 그 분석에 대하여 설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13. 이와 같이 세존께서 말씀하시자, 그들 수행승들은 만족하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받아 지녔다.

Suttantapiṭake Majjhimanikāyo Uparipaññāsako 4. Vibhaṅg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3.4.1

131 Bhaddekaratta suttaṁ

Evaṁ me sutam: ekaṁ samayaṁ bhagavā sāvatthiyaṁ viharati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bhikkhavo'ti. 'Bhadante'ti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m. Bhagavā etadavoca:

Bhaddekarattassa vo bhikkhave, uddesañca vibhañgañca desissāmi. Tañ suñātha, sādhukam manasi karotha. Bhāsissāmīti.

Evañ bhanteti kho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ñ. Bhagavā etadavoca:

Atītañ nānvāgameyya nappañikañkhe anāgatañ,

Yadañtañ pahīnañ tam appattañca anāgatañ.

Paccuppannañca yo dhammañ tattha tattha vipassatī,

Asañhīrañ asañkuppañ tam viditvā manubrūhaye.

Aje va kiccañ atappañ ko jaññā marañam suve,

Na hi no sañgaram tena mahāsenena maccunā.

Evañ vihāriñ atāpiñ ahorattamatanditañ,

Tam ve bhaddekarottoti santo ācikkhate munīti.

[PTS Page 188] [¶ 188/]

Kathañca bhikkhave, atītañ anvāgameti: evañrūp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vedan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saññ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sañkhār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viññāñ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 kho bhikkhave, atītañ anvāgameti.

Kathañca bhikkhave, atītañ nānvāgameti: evañrūp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na samanvāneti. Evañvedan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na samanvāneti. Evañsaññ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na samanvāneti. Evañsañkhār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na samanvāneti. Evañviññāño ahosiñ

Atī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na samanvāneti. Evañ kho bhikkhave, atītañ nānvāgameti.

[BJT Page 400] [x 400/]

Kathañca bhikkhave, anāgatañ pañikañkhati: evañrūpo siyañ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vedano siyañ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sañño siyañ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sañkhāro siyañ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viññāño siyañ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ñ samanvāneti. Evañ kho bhikkhave, anāgatañ pañikañkhati.

Kathañca bhikkhave, anāgataṁ nappaṭikaṅkhati: evaṁrūpo siyaṁ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ṁ na samanvāneti. Evaṁvedano siyaṁ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ṁ na samanvāneti. Evaṁsañño siyaṁ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ṁ na samanvāneti. Evaṁsaṅkhāro

Siyaṁ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ṁ na samanvāneti. Evaṁviññāṇo siyaṁ

Anāgatamaddhānanti tattha nandiṁ na samanvāneti. Evaṁ kho bhikkhave, anāgataṁ nappaṭikaṅkhati.

Kathañca bhikkhave, paccuppannesu dhammesu saṁhīrati: idha bhikkhave assutavā puthujjano ariyānaṁ adassāvī ariyadhammassa akovido ariyadhamme avinīto sappurisānaṁ adassāvī sappurisadhammassa akovido sappurisadhamme avinīto rūpaṁ attato samanupassati, rūpavantaṁ vā attānaṁ, attani vā rūpaṁ, rūpasmīṁ vā attānaṁ. Vedanaṁ attato samanupassati, vedanāvantam vā attānaṁ, attani vā vedanaṁ, vedanāya vā attānaṁ. Saññānaṁ attato samanupassati, saññāvantam vā attānaṁ, attani vā saññānaṁ, saññāya vā attānaṁ. Saññānaṁ attato samanupassati, [PTS Page 189] [¶ 189/] sañkhārvantam vā attānaṁ, attani vā sañkhāre, sañkhāresu vā attānaṁ. Viññāṇam attato samanupassati viññāṇavantam vā attānaṁ, attani vā viññāṇam, viññāṇasmiṁ vā attānaṁ. Evaṁ kho bhikkhave, paccuppannesu dhammesu saṁhīrati.

Kathañca bhikkhave, paccuppannesu dhammesu na saṁhīrati: idha bhikkhave sutavā ariyasāvako ariyānam dassāvī ariyadhammassa kovido ariyadhamme suvinīto sappurisānaṁ dassāvī sappurisadhammassa kovido sappurisadhamme suvinīto na rūpaṁ attato samanupassati. Na rūpavantaṁ vā attānaṁ, na attani vā rūpaṁ, na rūpasmīṁ vā attānaṁ. Na vedanaṁ attato samanupassati, vedanāvantam vā attānaṁ, na attani vā vedanaṁ, na vedanāya vā attānaṁ. Na saññānaṁ attato samanupassati, na saññāvantam vā attānaṁ, na attani vā saññānaṁ, na saññāya vā attānaṁ. Na sañkhāre attato samanupassati, na sañkhārvantam vā attānaṁ, na attani vā sañkhāre, na sañkhāresu vā attānaṁ. Na viññāṇam attato samanupassati, na viññāṇavantam vā attānaṁ, na attati vā na viññāṇam, na viññāṇasmiṁ vā attānaṁ. Evaṁ kho bhikkhave, paccuppannesu dhammesu na saṁhīrati.

Atitaṁ nānvāgameyya nappaṭikaṅkhe anāgataṁ,

Yadatītaṁ pahīnam tam appattañca anāgataṁ.

Paccuppannañca yo dhammaṁ tattha tattha vipassati,

Asaṁhīram asaṅkuppam tam vidvā manubrūhaye.

[BJT Page 402] [x 402/]

Ajjeva kiccam ātappaṁ ko jaññā maraṇam suve,

Na hi no saṅgaram tena mahāsenena maccunā.

Evaṁ vihāriṁ ātāpiṁ ahorattamatanditam,

Tam ve bhaddekarattoti santo ācikkhate munīti.

Bhaddekarattassa vo bhikkhave, uddesañca vibhañgañca desissā miti iti yam tam vuttam idametam pañicca vuttanti.

Idamavoca bhagavā. Attamanā te bhikkhū bhagavato bhāsitañ abhinandunti.

Bhaddekaratta suttañ pathamañ

<http://awake.kiev.ua/dhamma/tipitaka/2Sutta-Pitaka/2Majjhima-Nikaya/Majjhima3/131-baddekaratta-p.html>

MAJJHIMA NIKĀYA III
III. 4. 1. Bhaddekarattasuttañ
(131) A Single Auspicious Attachment

MAJJHIMA NIKĀYA III
III. 4. 1. Bhaddekarattasuttañ
(131) A Single Auspicious Attachment

I heard thusAt one time the Blessed One was living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ñ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bhikkhus from there. 'Bhikkhus, I will teach you the short and detailed expsition of the single auspicious attachment, listen attending carefully.

Do not recollect the past, nor desire the future,
The past is over, the future has not come.
These things of the present, see them with insight as they arise [1]
Not faltering and not moved, think about them.
Today itself the dispelling should be done
Tomorrow death might come
We will not have any associations with Death and his great army [2]
You should abide dispelling thus, day and night zealously,
This is the single auspicious attachment, the appeased sage tells.

Bhikkhus, how do you recollect the past? You think interestedly, I was of such matter in the past. I was of such feelings in the past. I was of such perceptions in the past. I was of such

determinations in the past. I was of such consciousness in the past. Bhikkhus, thus you recollect the past.

Bhikkhus, how do you not recollect the past? You do not think interestedly, I was of such matter in the past. I was of such feelings in the past. I was of such perceptions in the past. I was of such determinations in the past. I was of such consciousness in the past. Bhikkhus, thus you do not recollect the past.

Bhikkhus, how do you not desire the future? You do not desire interestedly, I should be of such matter in the future I should be of such feelings in the future I should be of such perceptions in the future I should be of such determinations in the future I should be of such consciousness in the future Bhikkhus, thus you do not desire the future.

Bhikkhus, how do you falter with things of the present? Bhikkhus, the not learned ordinary man, who has not seen noble ones and Great Beings, not clever in their Teaching, and not trained in their Teaching reflects, matter in self, or a material self, or in self matter, or in matter self. Reflects feelings in self, or a feeling self, or in self feelings, or in feelings self. Reflects perceptions in self, or a perceiving self, or in self perceptions, or in perceptions self. Reflects determinations in self, or a determining self, or in self determinations or in determinations self. Reflects consciousness in self, or a conscious self, or in self consciousness, or in consciousness self. Bhikkhus, thus you falter with things of the present.

Bhikkhus, how do you not falter with things of the present? Bhikkhus, the learned noble disciple, who has seen noble ones and Great Beings, clever in their Teaching, and trained in their Teaching does not reflect, matter in self, or a material self, or in self matter, or in matter self. Does not reflect feelings in self, or a feeling self, or in self feelings, or in feelings self. Does not reflect perceptions in self, or a perceiving self, or in self perceptions, or in perceptions self. Does not reflect determinations in self, or a determining self, or in self determinations or in determinations self. Does not reflect consciousness in self, or a conscious self, or in self consciousness, or in consciousness self. Bhikkhus, thus you do not falter with things of the present.

Do not recollect the past, nor desire the future,

The past is over, the future has not come.

These things of the present, see them with insight as they arise^{*1)}

Not faltering and not moved, think about them.

Today itself the dispelling should be done

Tomorrow death might come

We will not have any associations with Death and his great army^{*2)}

You should abide dispelling thus, day and night zealously,

This is the single auspicious attachment, the appeased sage tells

Bhikkhus, if I said, I will teach the short and detailed exposition of the single auspicious attachment, it was said on account of this.

The Blessed One said thus and those bhikkhus delighted in the words of the Blessed One.

[1] These things of the present, see them with insight as they arise (*paccuppannañ ca yo dhammañ tattha tattha vipassati*). 'The things that constantly arise in the present are matter, that is whatever matters at one or the other of the doors of mental contact, such as sights, sounds, smells, tastes, touches and ideas. Then the feelings that arise on account of these sights etc. and the perceptions and determinations and consciousnesses that follow. These things have to be seen with right insight and the self view should be destroyed.

[2] We will not have any associations with Death and his great army (*na hi no sañgaran tena mahāsenena maccunā*). The army of Death consists of all the defiling things that arise in the mind. They are sensuality, aversion, hunger, thirst, craving, sloth and torpor, fear, doubts, besmearing, stubbornness. Gain, fame and honour obtained unrighteously, praising oneself and disparaging others. This is the army of Death.